

3조원 규모 제주 신행만 건설사업 확정

정부, 제2차 신행만건설기본계획 심의 지정·고시
크루즈 4선석·여객 9선석 규모... 매립은 128만㎡
국비 1조8245억·민자 1조원 투입 해양관광허브 구축

오는 2040년까지 3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하는 제주 신행만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제86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신행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제주신행만과 동해신항 2곳과 기존 항만 10곳 등 전국 12개 신행만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이 담겼다. >>>관련기사 3면

해양수산부는 오는 2일 신행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제주 신행만 개발사업을 포함한 항만기본계획을 지정·고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신행만 건설은 초대형 크루즈와 여객부두 일원화를 통해 연간 400만명의 관광객을 수용하는 '해양관광 허브 항만'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해양관광지인 제주의 관광 잠재력을 높이고, 기항 크루즈 수요 급증에 대비한 동북아의 고품격·친환경 크루즈 모항 육성이 목적이다.

제주 신행만 건설은 오는 2040년까지 총 2조8662억원(국비 1조8245억원·민자 1조417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시설은 제주시 삼도동, 건입동, 용담동 일대에 외곽시설(방파제 2.82km·호안 2.09km)과 접안시설(크루즈 4선석·여객 9선석), 항만 배후부지(82만3000㎡)와 도로(0.325km) 등을 확충한다. 매립 규모는 총 128만3000㎡다.

개발방향은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해양관광 클러스터화 ▷항만과 도시 간 상생전락을 통한 개발 등이다.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국내 여객부두 인접 배후부지를 확보해 상업·문화·관광 복합지구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항만과 도시 간의 상생전락을 통한 개발은 제주신행만과 내항 재개발을 연계한 녹지사업 '수림대'(Eco-Zone)를 조성해 미세먼지 저감과 소음·공해예방 및 배후도시와 공존을 추구한다.

앞으로 제주도는 내년 예비타당성조사 시행과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

영향평가, 어업보상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제주신행만이 완공되면 생산유발효과 6조376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조9666억원, 취업유발효과 2만9158명 등의 직접 경제효과 외에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은 물론 구도심 활성화와 국제크루즈 거점항만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1일 오전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이 제주 신행만 개발 조감도를 통해 추진 사업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성장유망중소기업 19곳 선정·지원

도, 행·재정 인센티브 제공

올해 도내 성장유망중소기업에 19개 업체가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에 제주 대표 기업으로 육성하는 2019년 성장유망중소기업에 신규 9개, 재선정 10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성장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기술·경영·판매력이 우수하고 사회적 공헌을 실천하는 중소기업에 선

정해 지역경제를 선도할 제주의 대표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선정은 지난 5월 한 달 간 공모에 참가한 총 23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 현지실사와 1차 평가를 진행하고, 지난달 30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신규업체는 분야별로 제조업 3곳, 서비스업 2곳, 건설업 1곳, 유통업 1곳, 운수업 1곳, 임대업 1곳 등 9개 분야이며, 재선정된 10개 업체는 제조업 4곳, 서비스업 4곳, 유통업 2곳

등이다.

신규 선정업체는 (주)제이비엘, 두잉, (주)대한축산유통, 농협회사법인 (주)제주클린산업, 대창건설 (주), (주)아일랜드스토리, (주)제주엔젤렌트카, (주)브랜딩포커스, (주)한울사업 등이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경영안정지원 자금 융자지원(최고 4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금리 적용(이자보전 3%), 신용보증 수수료 인하(0.3%), 기술·경영·마케팅 컨설팅 및 해외 박람회 참관, 재산세 감면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2년 간 지원받게 된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불볕더위 기승... 주말에도 무더위 계속

피해도 갈수록 증가세

제주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말에도 가마솥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최고기온은 제주 32.1℃, 외도 32.3℃, 신례 31.8℃, 구좌 33℃, 월정 33.6℃, 성산 31.8℃, 한림 32.6℃를 기록했다. 제주 동부지역은 이틀째 폭염경보가 유지되고 있으며, 제주 북부와 서부지역도 폭염주의보가 각각 4일, 2일째 발효되고 있다. 열대야도 제주도 9일, 서귀포시·고산 각 6일, 성산 4일째 계속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달 29일 제주시 구좌읍 소재 A양돈농가에서 돼지 20마리가 더위를 이기지 못해 폐사한 것을 시작으로 1일까지 총 7개 농가에서 돼지 111마리가 폐사해 77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은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지역에서는 당분간 강한 일사와 지형적인 영향으로 인해 낮 기온이 33~35℃ 내외로 치솟아 매우 덥겠다"며 "밤 사이에도 기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은범기자

제주자치도 재정혁신 '본격화'

이월·불용액 최소화 대책 수립
예산요구·편성·집행 원칙 설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 건전성 강화와 재정 혁신을 위해 이월·불용액 최소화 대책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의 대책은 회계연도 결산 시 거론된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반환금, 이월·불용액 과다 발생 등의 재정 운영 지적 등에 대한 후속 조치인 셈이다.

특히 이월·불용액 과다는 예산을 적기·적소에 투입되지 못하고 재원이 사장돼 건전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예산 편성 과정에 '재정운영 기본원칙 정립'과 '집행에 대한 사업부서별 책임제'를 강화해 적극 재정 운영을 통한 체감형 성과창출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재정 혁신은 예산 요구, 편성, 집행 단계에서 모두 이뤄진다.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는 기본원칙이 설정·운영되며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가 시행된다.

예산요구단계에서는 사업효과, 도민수혜도 등 예산투입필요성을 동일 선상에서 검토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예산편성단계에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중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 된다.

예산집행단계에서는 계약·지출 기간 단축 운영, 선금지급 확대 등 재

정 신속 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추경 예산에 전액 삭감 후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운용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를 도입해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월액 과다 부서는 재정 신속집행 평가 시 감점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 페이코(paygo) 원칙을 적용해 신규 사업 편성을 제한할 방침이다.

불용액 과다 부서는 내년도 예산배정을 일부 유보해 예산집행에 제한을 둔다. 또 재정집행률 부진, 국비 반환금 과다, 세입추계 부정정 부서는 부수운영기분경비와 업무추진비 감액편성 등 페널티를 적용하게 된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탐라국 천년, 해양관광 실크로드 기반 마련

국제해상관광 선도할 제주신행만 지정!



“2040년까지 총 2조 8,662억원 투자”
(국비 1조 8,245억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선박대형화 및 크루즈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초대형 크루즈 및 여객부두 일원화로 해양관광 허브 인프라 구축
- 사업기간: 2019~2040 (1단계: 2019~2030, 2단계: 2031~2040)
- 총사업비: 2조 8,662억원(재정 1조 8,245억원, 민자 1조 417억원)
- 사업내용: 외곽시설 (방파제 2,82km, 호안 2,09km), 수역시설 (진입항로, 준설) 접안시설 (크루즈 4선석, 여객 9선석), 항만배후부지 (823천㎡), 도로 (0.325km) 등

경제적 효과

- 생산유발효과 6조3,76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조9,666억원, 취업유발효과 2만9,158명
-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구도심 활성화, 국제크루즈 항만 신 성장동력 기대

사업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 T.064) 710-6361

